

From 편집국

소통과 신뢰의 언론 이대학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학보 독자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앞 장의 기사가 재밌거나 눈길을 끌었다면 동그란 눈으로 지금의 장까지 자세히 읽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글은 읽히지 않겠지요. 어쨌거나 지금 읽으시는 신문은 2019학년도 상반기 마지막 신문입니다.



수업팀
이수빈 취재부장

이번 학기, 이대학보는 독자 여러분들과 때로는 동기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편안하게 소통하기 위해 프롬편집국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학보의 시스템 개편, 학보사 기자의 취재 과정과 공유하고픈 성과 등을 소개했죠.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과 가족들도 이해하기 힘든 학보사 기자의 생활을 짧게나마 글로 소개할 수 있어서 작은 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학보사 생활에 할애하는 체계 지인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학보 활동에 매진하는 거야?”

학보사 기자에게 신문은 열정의 공간이자, 작은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인쇄 후 기사의 오타를 발견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혹시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 정정보

도를 내야만 할 때면 온종일 우울하기도 하죠. 수업 시간에도 어떤 기사를 쓸지 고민하고, ‘불금’을 바쳐 기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런 학보 기자의 마음을 알기에 <서강학보>의 백지 발행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5월21일 <서강학보>는 주간 교수의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692호를 전면 백지발행했습니다. 신문 6~7면에는 이사회 및 서강대 박종구 총장과 관련한 ‘재단 기획’이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간 교수는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묻고 취재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면 발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지발행은 신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이 빈 신

문을 바라볼 때의 기분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서강학보>가 편집권 침해에 대해 백지발행이라는 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강학보>에 따르면 학보사는 기획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조사를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실시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였습니다.

‘학생’ 기자와 학생 ‘기자’의 사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신분이지만 교내 구성원을 독자로 상징, 발행하는 신문이기에 어느 한 입장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살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독자와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신문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대학보는 더 경계하겠습니다. 발행을 잠시 쉬는 동안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이라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단어에 최대한 많은 이화인이 공감할 수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면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빠져들 수 있는 신문으로 다음 학기에 찾아오겠습니다.

학생 칼럼

나는 무사하기 위해 웃는다

택시에 탄다. 가까운 데 간다고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누구보다도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다지 않는 거. 그런데 웬걸 침을 잘도 뱉는다.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한다. “아이, 손님 잘못 태웠네. 거기 가는 줄 알았으면 안 태웠지.” 나도 아저씨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아이, 택시 잘못 탔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택시 안 탔지.’ 하지만 무사히 집에 도착하려면 그럴 수 없다. 나는 멧쩍게 웃으며 말한다. “죄송해요..”



임세민
커마-16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고 싶다”

만 택시 안에서만은 그럴 수가 없다. 유쾌하지 않은 질문에도 애써 웃으며 답을 해야 했다.

집에 다 와갈 때쯤 어떤 아저씨는 나랑 헤어지기 싫다고, 내려주기 싫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농담처럼 웃으며 물으셨다. “반대쪽으로 계속 달려버릴까?” 아저씨 에겐 농담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말이 나에게겐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하하 웃으며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 손에 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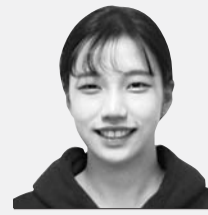
집에 오는 내내 나는 단 한순간도 웃기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지만 계속 웃어야 했다. 두렵고 불안할수록 나는 더 밝게, ‘예쁘게’ 웃었다. 지금은 늦은 밤중이고, 달리는 차 안에는 아저씨, 나 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저씨의 기분이 나빠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날지 확인할 수 없었고 ‘여승객 잠들자 청태이프’로 묶어 납치한 택시기사’와 같은 뉴스 헤드라인을 수없이 접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은 아빠와 함께 택시를 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아저씨의 인생사도, 싫은 소리도 듣지 않고 유쾌하지 않을 때 억지로 웃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곤할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잠깐 눈도 붙인다. 아빠는 알까?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고 볼쾌할 때는 마음껏 볼쾌함을 티 내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나도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고 싶다. 볼쾌할 때는 마음껏 볼쾌함을 티 내고 싶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내 성별이 바뀌어 있거나 캡틴아블처럼 테서렉트에서 엄청난 힘을 얻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 문을 열며 나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

상록탑

둘리도 안녕 길동 아저씨도 안녕



이유진
미디어부장

“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해질 때 어린이 된다는 말이 있었어.”

얼마 전 친구에게 이 말을 듣고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내 머릿속에는 둘리와 고길동이 함께 산다. 그것도 원작을 고증 하듯 매일 같이 우당탕탕 싸워가며. 이들의 달갑잖은 동거는 학보 막학기를 인턴 생활과 병행하며 시작됐다.

인턴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나는 사고뭉치 둘리의 꼴을 한다. “넌”, “죄송합니다” 연발하며 동분서주한다. 일상에 이는 작은 실수에도 괴로워한다. 학보실에서 나는 길동 아저씨의 모양새다. 실수 하나에 “다음부터는”, 실수 하나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배 기자의 실수 해는 밤을 보내며 부끄러운 부장 칭호를 슬퍼한다. 출퇴근과 동시에 직급을 넘나들며 하루 동안 몇 차례나 혼란스러워 한다. 자꾸만 사고 치는 둘리의 마음과 답답해하는 길동 아저씨의 마음이 번갈아 고개를 내민다.

신입기자 때의 내 모습은 어땠나. 모르는 게 뭐 그리 많았는지, 학보사에서 밤을 일주일에 세 번 주는지도 몰랐다. 미디어 기사를 어떤 목적으로 뽑았는지 몰랐다. 무지와 막막함을 고루 갖춘 둘리였다. 회상하다 보니 길동 아저씨의

역할을 가끔 말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만족해야 할 것만 같다.

막막함을 연료 삼아 2년을 악착같이 버텼으니 이 정도 만족은 허락해도 괜찮으려나? 취재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온라인에 아카이브할 인력이 필요해 뽑힌 것도 모르고 일을 벌리고 밤을 지냈다. 그 덕에 학기마다 부원이 한 명씩 늘어 넷이 됐다. 여전히 타인이 쓴 기사를 올리느라 주말을 써버리지만 STUDIO 이대학보라는 이름을 달고 영상을 만들기도 한다.

유월이면 이 일과도 안녕이다. 이제 금요일 밤에 공정실로 향할 일이 없다.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 기사들이 순서에 맞게 잘 올라갔는지 확인할 일도 없다. 그의 마흔 가지도 넘는 골칫거리들로부터 해방이다. 게다가 인턴 기간도 끝이다. 길동 아저씨처럼 잔소리할 일도 둘리처럼 사고치고 수습할 일도 없었다. 머릿속 불유쾌한 동거가 끝난다는 말이다. 그러니 후련해야 하는데, 까다롭게 굴며 스트레스 주었던 기억만 떠올라 글을 붙잡은 마음이 빗тин 사람처럼 헛헛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기자들은 서소문동에서 이번 학기 마지막 마감 중이다. 이런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빨리 글을 완성해 일찍 귀가하는 데 일조하는 것뿐이다. 가끔 길동 아저씨처럼 굴었고 모자란 면도 많았지만 부원들 끼니만은 챙겼던 2년 차 둘리를 가끔 떠올려 주길 바란다. 기자 꼬리표와 함께 쓰는 마지막 글을 내려놓는다.

만평 이유빈 만평기자 yoobin0228@ewhain.net



여론광장

상대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질문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 즉 모든 인간은 빠짐없이 고루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평등하게 존중하며 존중받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갑질 현상들이 이슈화된다. 갑질과 관련된 기사들은 넘쳐났고 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다. 갑의 위치보다는 을의 위치에 더 익숙한 나는 을의 아픔에 공감하며 갑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알바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신입 이던 내가 알바 3일 차가 되던 날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 날 직급이 나보다 높으신 A씨가 출근하셨고 나에게 대한 면박이 쏟아졌다.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면박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대

한 인격적인 모욕을 안겨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자존감이 훼손될만한 단어들을 듣고 있자니 울컥했지만 꼭 참았다. A씨는 나에게 굳이 그런 폭언을 날려야 했을까? 나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 나온 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짓밟는 말들을 하며 자신의 직급을 한 번 더 각인시킨다. 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살지는 말자. 또, 이런 취급을 하지도 말자.’

갑을관계 문제는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는 누군가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관계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친구 관계에서 한 사람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친구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관계가 한 사람에게만은 말 잘 듣는 착한 친구로 한 사람에게는 부러먹는 애로 서로가 다르게 인식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서로 친구가 아니다. 상대방보다 뭐가 그렇게 잘나고 싶어서 갑을관계에 집착하는 걸까. 같은 눈높이에서 맞추어가면 더 좋을 텐데 말이다. 또 직장에서는 이미 대부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큰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걸까. 돈과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유한 것을 침해해도 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미 소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텐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기본권까지 뺏으려는지 잘 모르겠다.

심지어 강아지도 주종관계가 아닌 친구, 가족으로 여겨지는 사회인데 사람인데 왜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지는 말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 주인이 종에게 잘해줘 봐야 주종관계일 뿐이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상대를 바라보고 다가가 때만이 비로소 상대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구은혜(사회·19)

금주의 책

활자 안에서 유명하기 : 깊고 진하게 확장되는 책 읽기

- 김겨울 지음, 서울 : 초록비책방, 2019



이 책의 저자가 인생의 책으로 선택한 작품은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이고, 공교롭게도 모두 소설입니다. 운명, 고독,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너머를 상상하는 일이고, 소설이라는 장르는 현실에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소망을 이뤄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소설을 통한 사유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가능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과학소설의 고전인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를 통해 그녀의 어머니인 여성주의자이자 급진파 사상가였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삶을 파고들기도 하고, 한 가문의 일대기를 그린 <백년의 고독>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짚어가며 시간 앞에 무력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자각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워 차마 시작하지 못한 고전읽기에 도전하는 이화인에게 즐겁게 건넬 수 있는 정검다리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책 / 4층 일반자료실 028.9.김14하]

-중앙도서관-